

한국의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연구 동향: 2001년부터 2020년 발표논문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Christian Adolescents in Korea – Focusing on Articles from 2001 to 2020

오혜정 (Hye Jeong Oh)**

ABSTRACT

The study aims to identify research trends on Christian adolescents in Korea and explore tasks for future researches related to Christian adolescents.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total of 138 articles from 2001 to 2020 published in KCI accredited and candidated journals was analyzed.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over the past 20 years, researches on Christian adolescents has increased from 2 articles in 2001 to 7 articles in 2020. Second, articles on Christian adolescents were published totally 22 journals which were converged to the fields of Christian theology, Christian education and Christian counseling. Third, with regard to the researchers, considerable number of researches were conducted individually, most of whom were affiliated with universities (e.g. professor, lecturer, graduate students, etc.). Collaborative researches between academic researchers and field researchers were only 6 articles. Fourth, in terms of research methods, non-empirical approaches were mainly used. Among empirical approaches,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were the most used and then,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nd experimental research methods. Fifth, research subjects of 61 articles of empirical studies were mainly adolescents, who wer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 and middle school students. Sixth, main research topics studied in articles were emotional and behavioral aspects, spiritual aspects, social aspects, vulnerable adolescents, cultural aspects and competence aspects.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presented sugges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on Christian adolescents, which were research increase and diversification, enhancement of research interests on underprivileged adolescents and related practices, qualitative research and experimental research activation, and strengthening of research collaboration among researchers, ministry and practice fields.

Key words : Jeanet Winterson, *Oranges Are Not the Only Fruit*, lesbian novel, postmodernism, the supremacy of Christ, the role of the church

* 2021년 2월 19일 접수, 3월 13일 최종수정, 3월 14일 게재확정

** 충신대학교(Chongshin University)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서울시 동작구 사당로 143 충신대학교, hyejeong.oh@chongshin.ac.kr.

I. 서론

신앙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 아는 지식적 차원과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임을 확신하는 정서적 차원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의지적 차원을 모두 포함한다(이은철·남선우·이성아, 2018). 이 때문에 기독교 신앙과 세계관은 우리의 삶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실제로 많은 연구들은 신앙과 신앙생활이 심리적 안녕감과 행복,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 대처 등의 심리·정서(Francis, & Kalbor, 2002; McIntosh et al., 1993; Nooney, & Woodrum, 2002; Stone et al., 2003) 또는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지, 사회활동, 사회참여 등의 사회적 차원(Bradley, 1995; Lam, 2002; Loveland et al., 2005)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범죄와 폭력 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Salas-Wrights, Vaughn, & Maynard, 2014). 이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아, 수많은 연구들이 기독교 신앙과 신앙생활이 청소년 발달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보고하였다. 관련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한 Regnerus와 Smith, Fritsch(2003)는 청소년의 신앙생활에 관한 보고서에서 신앙생활이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교생활과 학업성취, 윤리 발달, 사회참여와 봉사, 비행, 가족관계 등 청소년 발달의 다양한 영역에 대체로 긍정적 기여를 갖는 것을 보여주었고, Schnitker와 Medenwaldt, Williams(2020) 역시 청소년의 신앙생활 관련 연구들을 분석하면서 대부분의 연구에서 신앙이 청소년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그간 기독교 청소년의 신앙과 영성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전요섭과 배은주(2005)는 청소년의 신앙 배경과 하나님 이미지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은철·남선우·이성아(2018)는 기독교 청소년의 신앙과 관련하여 신앙유능감 척도를 개발하고자 구성 요인 탐색 연구를 실시했고 박준하(2010)는 영성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기독교 청소년의 신앙 배경, 신앙생활 수준, 신앙성숙 또는 영적 안녕감 등의 신앙 관련 요소가 심리·정서(노은석, 2019; 백은령·손병덕, 2017; 이현주, 2016; 최수영·김준, 2014), 가족관계(배은주, 2015; 이영희·박준하, 2011; 조혜정, 2015), 학교적응(김민선·손병덕, 2020), 진로 발달(배무련·김관희, 2015) 관련 다양한 변인들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다양한 변인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검증한 연구들이 많았다.

청소년의 신앙 성장과 영성 회복, 전도, 선교 등을 위한 기독교교육과 사역 관련 연구도 활발하였다. 조은하(2013), 손원영(2014), 장화선(2015), 이규민(2019) 등은 신학적, 성경적 관점, 때로는 당사자 관점에서 교회학교 예배와 교육, 그 외 사역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였고, 이때 황옥경(2010), 윤영대(2011), 김안식(2011) 등은 전도적, 선교적 가치와 방안에 초점을 두었다. 청소년교육과 사역의 방향성 모색의 구체적 시도로 이은규(2011)는 교회학교 커리큘럼으로서 웨스트민

스터 소요리문답의 의의와 적용방안을 논하였고, 소태영(2012)과 이성주·강대용(2018)은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 제시하였으며 남선우·강인애(2012)는 성경캠프에서 스마트 러닝을 도입하고 김수환(2019)은 청소년 교회학교 내 플립러닝을 접목하여 그 효과와 의의를 분석하였다. 김난예·이창욱(2012)과 남선우·이은철·이성아(2018), 박미라(2009) 등은 한발 더 나아가 이러한 교회교육과 사역에 대한 청소년의 흥미와 만족, 적응 등을 검증하기도 하였다.

한편 기독교 청소년이 경험하는 문제와 위기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들은 학대와 방임(김진성, 2020; 안미옥, 2017),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조용훈, 2014; 오운선, 2018), 가출(이명훈, 2015), 스마트폰과 게임 중독(심정연, 2019; 장성화·윤향숙·황인호, 2010), 자해와 자살 충동(강경미, 2010; 주정관, 2014) 등 기독교 청소년을 둘러싼 여러 위기와 문제를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검토하며 기독교적 교육과 상담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장애 청소년(이준우, 2004; 김춘이, 2014), 탈북 청소년(유명복, 2005; 윤혜경, 2019) 또는 다문화가정 청소년(김미경, 2011; 변영인, 2012) 등 취약 청소년에 관한 연구도 일부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독교 청소년 관련 연구들이 적지 않게 이루어진 반면 연구 동향에 대한 체계적 고찰은 부재하였다. 일반 청소년 연구의 경우 진로발달과 진로상담(이효경·이순희·손은령, 2018), 청소년 활동(전명순, 2017), 스마트폰 중독(김영숙, 2015), 자해(이문영·배용순, 2020) 등의 주제별 또는 학업중단(김범구, 2012)과 학교 밖 청소년(조혜영, 2019), 한부모 가정 청소년(남현주 외, 2013), 다문화 청소년(박병금, 2020), 탈북 청소년(윤혜순, 2014) 등의 대상별로 세분화하여 활발히 연구 동향을 고찰한 것과 대비된다. 연구 동향 분석은 그간의 연구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연구의 성장 과정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분야의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연구의 성장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 이러한 의의는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에서 더욱 중요할 수 있다. 청소년 시기는 학업 수행, 진로발달, 자아정체성 확립, 또래 관계를 비롯한 사회성 발달 등의 발달과업이 이루어지기에 인간의 발달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기독교 신앙과 세계관, 교회공동체에서의 관계와 활동, 기독교 가치에 기반한 교육과 상담, 사회복지실천 등은 청소년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정경미, 김미경, 2015; Regnerus, Smith, & Fritsch, 2003; Schnitker, Medenwaldt, & Williams, 2020).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최근 20년간(2001-2020)의 연구 동향을 논문게재 시기와 연구 분야,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향후 기독교 청소년 관련 연구과제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청소년 관련 연구는 어느 시기에, 어떤 학술지 및 분야에서 연구되었는가?

둘째, 기독교 청소년 관련 연구는 어떤 연구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는가?

셋째, 기독교 청소년 관련 연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와 내용에 관하여 연구되고 있는가?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에서 한국연구재단(KCI)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를 기준으로 지난 20년간(2001년~2020년)의 연구물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학자마다 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기독교(교) 청소년’, ‘기독교(교) 아동’, ‘기독교(교) 어린이’, ‘기독교(교) 학생’ 및 ‘교회 청소년’, ‘교회 아동’, ‘교회 어린이’ 등을 모두 검색어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총 278개 문헌이 검색되었고, 이 중 동일한 문헌, 원문이 공개되지 않은 문헌,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헌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138개 문헌을 선정하였다.

2. 연구의 분석틀

연구의 분석틀은 청소년 대상 연구 동향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김범구, 2012; 윤혜순, 2014; 전명순, 2017)를 참고하여 논문게재 시기와 연구 분야,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주제를 중심으로 구분하였고, 각 주제에 따른 연구내용을 세분화 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전반적 연구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논문게재 시기와 학술지, 학술지 분야를 기준으로 문헌들을 분석하고 둘째, 연구자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연구자 수(1인, 2인, 3인, 4인 이상)와 함께 연구자 소속을 대학, 연구소, 사역현장(교회, 기독교 학교, 기독교 상담기관, 기독교단체 등)으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셋째, 연구방법 동향은 먼저 경험적 연구인지 비경험적 연구인지 구분하였고, 경험적 연구는 다시 양적 연구, 실험 연구, 질적 연구로 분류하였다. 넷째, 연구대상 동향은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중학생 연령, 고등학생 연령, 중고등학생 연령을 중심으로 하되 초등학생 및 청년기 연령을 포함하는 경우, 교역자/교사/부모 등 성인을 포함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주제 동향은 표집한 각 논문의 주제와 내용을 파악한 후, 그를 토대로 영적 차원, 정서·행동 차원, 사회적 차원, 문화적 차원, 역량 차원 그리고 취약 청소년 지원의 6개 주제로 분류하였다. Table 1에서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Table 1 Analysis framework

Overall	When the article was published
	What journal the article was published in
Researcher	How many researchers wrote the article (1, 2, 3 or more)
	Which organizations were researchers affiliated in (e.g.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Christian ministry field such as church, Christian school, etc.)
Research subject	Which age group did the research target (e.g. 13-15 / 16-18 / 13-18 years old)
Research method	What methodology did the research take (e.g. non-empirical research vs. empirical research - quantitative, experimental and qualitative research)
Research topic	What topic did the research explore

III. 연구결과

1. 전반적 연구 동향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연구의 전반적 동향을 살펴보고자 연도별 논문 빈도를 확인하면,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20년간 불규칙적 증감이 있으나 2001년 2편에서 2020년 7편으로 대체로 증가하였고 특히 2011년(15편), 2010년과 2012년, 2019년(각 13편), 2018년(12편)에서 기독교 청소년 관련 논문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는 총 22종으로 다양했으나 대부분의 논문은 기독교신학(44편, 31.9%), 기독교교육(41편, 29.7%), 기독교상담(39편, 28.3%) 등에 게재되었고, 그 외 기독교와 다른 학문의 학제간연구(6편, 4.3%), 청소년학과 기독교윤리(각 3편, 2.2%), 사회복지와 문화예술(각 1편, 0.7%) 분야에서 일부 게재되었다. 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된 학술지 또한 「복음과 상담」(27편), 「기독교교육정보」(24편) 등으로 나타나 기독교 청소년 관련 연구의 관심이 주로 교육과 상담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Table 3에서 학술지 분야 및 학술지별 논문 분포를 자세히 제시하였다.

Table 2 Articles published from 2001 to 2020

Year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Articles	2	2	2	4	6	4	2	3	7	13	15	13	5	10	8	6	4	12	13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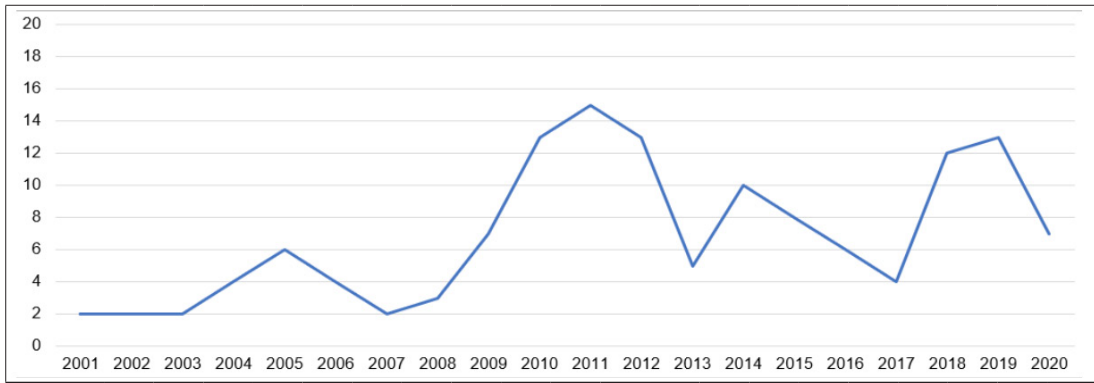


Table 3 Research fields and journals

Fields	Journals	Articles	%	
Christian theology	Theology and Praxis	13	44	31.9
	Bible and Theology	7		
	Journal of Evangelical Practical Theology	7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2		
	Theological Forum	3		
	Korea Reformed Journal	3		
	Mission and Theology	3		
	Theology and Society	2		
	Evangelical Missiology	2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1		
	University and Christian Mission	1		
Christian education	Christian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24	41	29.7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14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3		
Christia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27	39	28.3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12		
Other Christian Studies	The Korean Journal of Christian Social Ethics	3	3	2.2
Interdisciplinary Research	Faith & Scholarship	6	6	4.3
Youth Stud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	3	2.2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		
Other Studies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1	2	1.4
	Korea Journal of Korea Dance	1		
Total articles		138		100.0

2. 연구자 동향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연구의 연구자 동향을 연구자의 수와 소속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전체 138편 논문 중 1인 단독연구가 113편(81.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인 연구(22편, 15.9%), 3인 연구(3편, 2.2%)의 순이었다. 연구자 소속의 경우 논문에 저자 직책이 정확하게 명기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크게 대학(교수, 강사, 대학원생 모두 포함)과 교회(목회자 등), 연구소, 교육 및 상담현장으로 구분하였는데, 총 166명 중 대부분인 147명(88.6%)은 대학 소속(전임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 대학원생 등)이었고 19명(11.4%)은 대학 외 소속, 주로 교회(10명), 교육 및 상담현장(5명), 연구소(4명) 소속이었다. 이에 2인 이상의 연구에서 대학과 교회 또는 실천현장 간의 협업을 살펴보았는데, Table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학 소속 연구자와 그 외 소속 연구자 간의 협업 논문은 6편, 이 중 대학과 교회 또는 대학과 실천현장의 협업은 4편에 불과하였다.

Table 4 Researchers

# of Researchers	Affiliation	Articles	%
1 Researcher	University (e.g. professor, lecturer, graduate students, etc.)	101	81.9
	Research institute	1	
	Church (e.g. pastor, minister, etc.)	7	
	Practical field (e.g. counseling center, school, etc.)	4	
2 Researcher	University + University	18	15.9
	University + Research institute	2	
	University + Church	1	
	University + Practical field	1	
3 Researchers	University + University + University	1	2.2
	University + University + Church	1	
	University + Research institute + Church	1	
Total		138	100.0

3. 연구방법 동향

기독교 청소년 관련 연구는 연구방법을 기준으로 크게 경험적 연구와 비경험적 연구로 구분하고, 경험적 연구는 다시 양적 연구와 실험 연구, 질적 연구로 구분하여 Table 5로 제시하였다. 경험적 연구 중 양적 연구는 40편(29.0%)으로 주로 신앙생활과 영성, 자기인식과 심리정서, 학교생활, 사회적 관계 등 기독교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변인들의 상관관계, 인과관계, 매개/조절 효과, 평균 차이 등을 분석한 연구

들이었다. 실험 연구는 8편(5.8%)으로 기독교 청소년 대상의 교회교육 프로그램, 개인 또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 수련회 프로그램 등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들이었다. 질적 연구는 13편(9.4%)으로 현상학적 연구, 생애사 연구, 내러티브 연구, 질적 사례 연구, 상담 사례 연구 등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이 활용되었다. 비경험적 연구는 총 77편으로 절반을 넘었는데(55.8%), 선행연구 또는 성경적, 신학적 관점을 통한 기독교 청소년 및 관련 문제의 이해, 그에 대한 교육과 상담, 치유, 복지 방안의 고찰 등에 관한 연구가 주요하다.

Table 5 Research methods

Methods	Empirical research			Non-empirical research	Total
	Quantitative research	Experimental research	Qualitative research		
Articles	40	8	13	77	138
%	29.0	5.8	9.4	55.8	100.0

4. 연구대상 동향

연구대상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선행연구 및 성경적, 신학적 관점을 통해 기독교 청소년과 문제, 그에 대한 사역과 실천 방안 등을 연구한 비경험적 연구는 연구주제로 기독교 청소년을 다루지만 구체적 연령대 등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경험적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경험적 연구는 크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논문과 청소년과 성인 또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으로 구분되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59편(96.7%), 청소년과 성인 또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2편(3.3%)이었다. 청소년 대상 논문의 경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30편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19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6편, 그리고 중·고등학생과 함께 청년을 포함한 논문, 초·중·고등학생 및 청년을 모두 포괄한 논문이 각각 2편이었다.¹ 한편 청소년과 성인 또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으로는 청소년 및 교역자와 부모, 담임목회자 등을 모두 포함한 논문이 1편, 기독교 청소년 사역 전문가(목회자와 교수 등)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한 논문이 1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논문의 경우, 연구대상 청소년의 연령이 해당하는 학교급(초/중/고)에 맞추어 분류하였다.

Table 6 Research subjects

Research subjects		Articles	%
Adolescents	Middle school students (13-15 years old)	6	9.8
	High school students (16-18 years old)	19	31.1
	Middle / High school students (13-18 years old)	30	49.2
	Middle / High school students + Youth (13-24 years old)	2	3.3
	Elementary / Middle / High school students + Youth (7-24 years old)	2	3.3
(Adolescents) + Adults	Adolescents + Adults (e.g. pastors, teachers, parents, etc.)	1	1.6
	Professionals (e.g. pastors, professors, etc.)	1	1.6
Total (empirical researches)		61	100.0

5. 연구주제 동향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논문 138편의 연구주제는 크게 영적 차원, 정서·행동 차원, 사회적 차원, 문화적 차원, 역량 차원 그리고 취약 청소년 지원의 6개 주제로 분석되었다. 주제별 논문 현황을 살펴보면, Table 7에서 볼 수 있듯이 정서·행동 차원에 관한 논문이 64편(46.4%)²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영적 차원 44편(31.9%), 사회적 차원 18편(13.0%), 취약 청소년 지원 11편(8.0%), 문화적 차원 9편(6.5%), 역량 차원 8편(5.8%)의 순이었다.

Table 7 Research topics

Research topics	Contents	Articles	% (of 138)
Spiritual aspect	personal faith / religiosity / spiritual well-being	18	13.0
	church education and ministry / Christian education	26	18.8
Emotional and behavioral aspect	psychological well-being / mental health / emotional problems	23	16.7
	behavioral problems and crisis	41	29.7
Social aspect	family relationship and conflicts / parenting attitudes	9	6.5
	school experiences / learning / peer relationship	4	2.9
	career development / other social activities	5	3.6
Cultural aspect	youth culture / media and internet / consumerism	9	6.5

1) 총 138편 논문 중 16편은 6개 연구주제 중 2개에 해당하여 각 주제 논문 편수에 포함하여 주제별 논문 편수의 합계는 154편이 되었다. 그러나 전체 논문 중 각 연구주제의 빈도는 분석 취지를 고려할 때 분석대상 논문 138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Competence aspect	(global) citizenship / creativity	8	5.8
Vulnerable adolescents	multicultural / disabled /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	11	8.0
Total		154	100.0

* Since sixteen articles had two topics and were included in the number of articles for each topic, the sum of the number of articles for each topic was 154. However, the ratio was measured with the base of the total of articles from 2001 to 2020, that was 138 according to the analysis purpose.

첫 번째 주제인 영적 차원은 개인적 신앙과 영성, 교회교육과 청소년 사역의 두 개 소주제로 구분되는데, 이 중 개인적 신앙과 영성에 관한 연구는 18편(13.0%)으로 기독 청소년 개인의 신앙생활과 신앙 상태, 신앙성숙, 하나님 이미지 등이 어떠한지, 이러한 개인적 신앙의 특징과 수준이 다른 영역 즉 청소년 개인의 심리정서나 학교생활, 진로발달, 가족관계 등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등을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 때문에 신앙과 영성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16편)은 양적 연구 및 실험 연구에 해당하였다. 한편 교회교육과 청소년 사역에 관한 연구는 26편(18.8%)으로 교회교육과 기독교교육, 청소년 전도와 선교, 청소년 예배와 설교, 수련회 등에 관한 현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성경적, 신학적 관점에서 방향성과 접근을 제시하는 비경험적 연구가 대다수였다(20편). 그 외 청소년의 교회공동체 적응성, 교회교육 프로그램 또는 수련회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등을 분석한 양적 연구가 4편, 성경캠프 또는 수련회 참가 청소년의 경험과 내러티브를 탐구한 질적 연구가 2편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주제인 정서·행동 차원은 그간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영역이었는데, 심리·정서적 차원과 행동적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심리·정서적 차원에 관한 논문은 23편(16.7%)으로 자아정체감을 비롯한 자아개념, 삶의 만족도나 행복감과 같은 긍정적 정서와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 나아가 심리·정서 문제를 포괄하였다. 이러한 심리·정서가 기독 청소년의 신앙, 영성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본 양적 연구(11편)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독 청소년 대상의 치료, 상담,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심리·정서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실험 연구와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기독교교육과 상담 방안을 고찰한 비경험적 연구(각 5편), 실제 기독교상담 사례를 연구, 분석한 질적 연구(2편) 등의 순이었다. 또 다른 소주제인 행동적 차원에 관한 논문은 41편(29.7%)으로 스마트폰 중독에서부터 학교폭력, 학업중단, 비행, 가출, 자해, 자살 충동, 성폭력 등의 여러 문제행동과 위기를 다루었는데, 이처럼 다양한 청소년 문제와 위기를 해결 또는 예방하기 위한 기독교교육, 기독교상담, 위기청소년을 위한 교회사역 등에 대하여 논한 비경험적 연구가 상당수였다(27편). 이외에도 기독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문제행동과 위기가 심리·정서에 미치는 영향, 특히 문제행동 또는 위기 경험과 기독교 신앙·영성의 관계를 분석한 양적 연구(11편)와 스마트폰 중독, 가출, 성폭력 피해 등의 위기 가운데 있는 청소년을 심층

인터뷰 또는 상담하여 분석한 질적 연구(3편)가 이루어졌다.

세 번째 주제는 사회적 차원이다. 기독교 청소년을 둘러싼 가장 주요한 환경이자 체계로 가족, 또래 및 학교, 교회를 고려할 수 있는데 교회의 경우 앞서 첫 번째 주제의 교회교육과 청소년 사역 소주제에 포함되어 사회적 차원에서는 가족, 또래 및 학교를 고려하였고, 이에 덧붙여 진로발달 및 사회참여를 추가하여 3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살폈다. 첫 번째 소주제인 가족과 관련하여서는 가족구조와 구성원 간의 관계와 갈등,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 의사소통 유형 등에 대하여 9편(6.5%)의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주로 가족 관련 변인과 기독교신앙, 심리정서 등의 변인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양적 연구였고(6편), 가족 관계나 양육태도 등에 대한 기독교교육 및 상담적 접근을 제시한 비경험적 연구가 일부(3편) 차지하였다. 두 번째 소주제인 또래 및 학교 관련 연구는 4편(2.9%)이었는데, 학교생활 또는 1년간 학교를 쉬는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2편), 기독교 신앙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검토한 양적 연구(1편), 기독교 학습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1편) 등이 포함되었다. 마지막 소주제인 진로발달 및 사회참여를 다룬 논문은 5편(3.6%)이었다. 기독교 청소년의 신앙성숙과 진로소명,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등 진로발달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한 양적 연구와 기독교적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본 실험 연구, 지역사회 내 기독교교육 요소를 적용한 청소년 진로지도 프로그램 사례를 연구한 질적 연구가 각각 1편이었고, 기독교 청소년의 봉사활동의 의미를 탐색한 비경험적 연구가 2편이었다.

네 번째 주제는 문화적 차원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문화,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식, 이러한 문화적 상황 가운데 어떻게 청소년을 교육하고 상담할 것인가에 관한 기독교교육, 기독교상담적 고찰이 주를 이룬다. 총 9편(6.5%)으로 대부분 비경험적 연구(8편)이며 인터넷(사이버) 문화, 대중매체와 스타 우상숭배, 소비주의, 여성주의, 반생명적 문화 등을 다루었다. 다섯 번째 주제는 역량 차원으로 총 8편(5.8%)의 연구가 이에 관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창의성, 민주시민의식, 세계시민의식 등 현재 그리고 미래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기독교 신앙과 세계관과 연계하여 고찰하고, 앞으로의 교회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한 비경험적 연구(4편), 이러한 역량과 시민의식 등에 있어 기독교 청소년의 실태와 특성이 어떠한지, 신앙과 영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확인하는 양적 연구(3편), 관련 프로그램 사례를 검토한 질적 연구(1편) 등이다.

마지막 주제인 취약 청소년 지원에 관한 논문은 11편(8.0%)이었다. 취약 청소년의 유형 측면에서는 취약 청소년 전반을 다룬 논문 1편 외 장애 청소년(4편), 탈북 청소년(4편), 다문화 청소년(2편) 등이 구체적으로 연구되었고, 실제 실천과 관련하여서는 기독교상담(5편), 기독교교육(3편), 기독교사회복지(1편), 선교(1편), 예술치료(1편) 등의 분야에서 논의되었다. 연구방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취약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독교상담, 기독교교육, 기독교사회복지 등의 방향성과 방안을 모색하는 비경험적 연구가 8편,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기독교 교육 요소와 심리사회적 기능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와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언어 및 문화사회 정체성과 심리정서, 학교생활 등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기독교

교 선교방안을 모색한 연구 등 양적 연구가 2편, 장애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 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의의를 살펴본 질적 연구가 1편이었다.

이러한 연구주제 동향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자 주제별, 연도별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Table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서·행동 차원의 주제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그리고 가장 활발히 연구된 것으로 나타나 우울, 자해, 학교폭력, 디지털 범죄 등 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의 심각성이 큰 현실 가운데 기독 청소년의 심리·정서와 행동, 관련 문제와 위기에 대한 연구자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영적 차원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사회적·문화적 변화 속에서 청소년 예배와 교회교육, 그 외 사역 방향과 전략에 대한 관심이 꾸준할 뿐 아니라 기독 청소년의 신앙과 영성이 청소년의 다른 영역 예를 들어 심리·정서, 학교생활, 진로발달 등과 어떠한 연관성 또는 인과관계를 갖는지 검증하는 양적 연구 시도도 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독 청소년의 가족과 또래 관계, 학교생활, 진로발달, 사회참여 등 사회적 차원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조금씩 이루어져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족과 또래, 학교 등과 같은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체계는 청소년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청소년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학업과 진로발달, 사회참여 등의 사회활동은 그 자체로도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주요할 뿐 아니라 청소년의 심리·정서, 사회성 등의 발달 및 청소년기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 때문에 기독 청소년의 사회체계와 사회활동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문화적 차원에 관한 연구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청소년 문화 현상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교회의 청소년 사역 및 기독교상담 또는 교육의 과제를 모색하는 연구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기독 청소년의 신앙과 영성, 정서·행동, 학교생활, 진로발달 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늘고 있어 상대적으로 문화 차원에 대한 비경험적 연구가 많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역량 차원에 관한 연구는 2010년대부터 조금씩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미래사회를 살아갈 청소년이 함양해야 할 역량과 기독 청소년의 신앙과 영성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 또는 이들 역량 개발과 연계하여 교회교육 또는 기독교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연구가 최근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기독 청소년이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지원에 대한 사회 및 교계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질 것이므로 향후 역량 차원에 관한 연구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그에 반해 취약 청소년 지원 주제에 대하여는 2010년을 전후하여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에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앞서 청소년의 정서·행동 문제와 위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던 것과 대비되는 결과로, 향후 다양한 취약 청소년에 대한 기독교상담과 교육, 사회복지 및 사역 방안의 구체적 탐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Table 8 Research topics by year

Year	Articles by research topic					
	Spiritual	Emotional / behavioral	Social	Cultural	Competence	Vulnerable Adolescents
2001	-	-	-	2	-	-
2002	1	1	-	-	-	-
2003	-	1	-	1	-	-
2004	-	3	-	-	-	1
2005	1	1	-	1	1	2
2006	-	3	1	-	-	-
2007	2	-	2	-	-	-
2008	2	-	1	1	-	-
2009	2	3	1	-	-	1
2010	3	9	1	-	-	1
2011	6	4	2	1	1	2
2012	4	6	-	-	2	1
2013	2	3	1	-	-	-
2014	2	6	-	2	-	1
2015	4	5	2	-	-	-
2016	4	2	1	1	1	-
2017	1	4	-	-	-	-
2018	5	3	2	-	2	-
2019	3	7	1	-	1	2
2020	2	3	3	-	-	-
Total	44	64	18	9	8	11

IV. 결론

본 연구는 기독 청소년에 관한 선행연구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기독 청소년 관련 연구과제를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으로 기독 청소년에 관한 논문 총 138편을 분석하였고, 분석틀로 논문게재 시기와 학

술지, 학술지 분야, 연구자 수와 소속,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주제 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논문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총 138편(최근 5년간 42편) 발표되었고, 연도별 논문출현 빈도는 2001년 2편에서 2020년 7편으로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기독교 청소년에 대한 연구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른 연구대상에 관하여 KCI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발표된 기독교 논문 빈도를 살펴보면 기독교 노인에 관한 논문은 최근 5년간 35편(2001-2020년 89편), 기독교 유아에 관한 논문은 최근 5년간 43편(2001-2020년 91편)으로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최근 5년간의 논문 빈도와 유사하거나 그에 미치지 못했으나, 기독교 청년에 관한 논문은 최근 5년간 121편(2001-2020년 253편)으로 기독교 청소년 및 다른 대상에 관한 논문 빈도를 크게 상회하였다. 단순히 발표 논문수로 연구 관심도를 비교할 수는 없으나 논문 빈도가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자, 실천가 등의 관심, 문제의식, 다양한 실천과 사역 시도 등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지표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학계와 연구계, 교계의 관심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둘째, 기독교 청소년 관련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는 총 22종으로 기독교신학과 기독교교육, 기독교상담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기독교 청소년의 신앙과 영성 및 그를 위한 기독교교육, 청소년 사역의 방향성과 과제, 다양한 청소년 문제와 위기에 관한 기독교적 상담과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그 외 기독교사회복지, 기독교문화예술 등의 다양한 기독교학문 또는 청소년 관련 학문 분야에서의 연구는 다소 미비하여 향후 기독교 청소년 관련 연구가 보다 다양해지고 다각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연구자 동향을 살펴본 결과 1인 단독연구가 상당수였고(81.9%), 다음으로 2인 연구(15.9%), 3인 연구(2.2%)의 순이었다. 연구자 대부분(88.6%)은 전임 또는 겸임교수, 시간강사, 대학원생 등 대학 소속이었고 교회, 교육 또는 상담현장, 연구소 등에 소속된 경우가 일부(11.4%) 있었다. 2인 이상의 연구에 대하여 대학과 교회 또는 실천현장 간 협업을 살펴보았는데, 대학 소속 연구자와 그 외 소속 연구자 간의 협업 논문은 6편에 불과하였다. 기독교 청소년의 실제적인 생활 실태와 특성, 문제와 욕구 등을 파악하고 그에 기반한 교육과 상담, 사역 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교회, 기독교교육 및 상담기관, 학교, 청소년기관 등과의 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향후 연구자 및 연구기관과 사역, 실천현장 간의 협업 환경과 문화가 구축,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연구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비경험적 연구가 가장 많았고(55.8%), 다음으로 경험적 연구 중 양적 연구(29.0%), 질적 연구(9.4%), 실험 연구(5.8%)의 순으로 나타나 연구방법의 편중이 상당하였다. 연구주제의 특성상 성경적, 신학적 관점에서 기독교 청소년과 관련 문제를 고찰하고 그에 대한 기독교교육과 상담, 복지 접근의 방향성과 방안을 제시하는 비경험적 연구, 그리고 기독교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

을 둘러싼 여러 영역에 대한 다양한 변인들의 수준과 특성, 관계를 검증하는 양적 연구의 의의가 크기 때문에 해석된다. 그러나 기독교 청소년 당사자의 삶과 경험을 깊이 들여다보고 탐구하는 질적 연구, 그리고 기독교교육, 기독교상담 등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실험 연구의 의의 또한 크고 중요한 만큼 질적 연구와 실험 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이 활용될 필요가 크다.

다섯째, 경험적 연구 61편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을 분석한 결과 중·고등학생이 가장 많고(49.2%) 다음으로 고등학생(31.1%), 중학생(9.8%), 중·고등학생과 청년 또는 초·중·고등학생과 청년(각 3.3%), 청소년과 성인 또는 기독교 청소년 사역 전문가(각 1.6%) 등의 순이어서 중학생에 초점을 둔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포함 연구가 적은 것은 본 연구가 중·고등학생에 초점을 두어 기독교 청소년을 이해한 것에 기인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기독교 청년 또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유의 연구는 본 연구 분석논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섯째, 연구주제는 크게 영적 차원, 정서·행동 차원, 사회적 차원, 문화적 차원, 역량 차원 그리고 취약 청소년 지원의 6개 주제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정서·행동 차원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았고(46.4%), 다음으로 영적 차원(31.9%), 사회적 차원(13.0%), 취약 청소년 지원(8.0%), 문화적 차원(6.5%), 역량 차원(5.8%)의 순이었다. 게다가 정서·행동 차원과 영적 차원에 관한 연구는 분석 기간(2001-2020) 내내 활발히 이루어져 연구자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을 보여주었다. 그 외 주제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못해 다양한 연구주제의 발굴과 연구자들의 연구 관심과 지평의 확대가 시급한데, 그 가운데 사회적 차원과 역량 차원의 주제 연구가 최근 활발해지고 있어 긍정적이다. 기독교 청소년 개인의 신앙과 영성, 기독교 청소년을 위한 교회의 실천과 사역 차원 그 자체 뿐 아니라 신앙, 교회교육 또는 기독교적 프로그램 등이 청소년을 둘러싼 다른 체계 즉 가족, 또래,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학습과 진로발달 등 주요 발달과업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지, 특히 오늘날의 빠른 사회변화 가운데 청소년이 갖추고 길러야 할 역량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등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보인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향후 연구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연구의 양적 확대 및 연구주제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지난 20년간 연간 논문출현 빈도가 증가하였으나 오늘날 기독교 청소년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교회 현실 그리고 심리·정서적 문제, 자해와 자살 충동, 학교폭력, 비행과 범죄, 가출 등 청소년이 경험하는 문제와 위기의 심각성이 상당한 사회 현실을 고려하면 여전히 연구가 부족하기에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요청된다. 이때 연구주제 및 분야의 다각화도 필요하다. 그간의 연구 동향을 통해 기독교 청소년 관련 논문이 영적 차원과 정서·행동 차원 주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기가 심리·정서적으로 예민하고 불안정하여 정서 문제 또는 문제행동을 보이기 쉬운 시기인 동시에 교회 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인구집단이어서 그에

대한 기독교적 사역과 실천 모색이 절실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기독 청소년의 삶은 영적, 정서·행동 차원 뿐 아니라 가족관계, 학교생활, 또래관계, 진로발달, 역량개발 등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고 이들의 기독 청소년에 대한 영향 또한 상당하므로, 앞으로 다양한 요소들의 관계와 작용에 대한 입체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취약 청소년을 위한 사역과 실천에 관한 기독 연구자들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연구주제 동향을 살펴보면 가출, 비행, 폭력, 자해 등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만 빈곤, 장애, 한부모, 이주 배경 등의 취약성을 가진 청소년에 대한 기독교적 사역과 실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취약 청소년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촉구되는데, 특히 이들의 강점과 역량, 잠재성을 발현하지 못하게 하는 취약한 여건과 상황, 둘러싼 한계와 장벽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이러한 취약성이 기독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여 이들을 돕고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크다. 이를 통해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기독 연구자로서 여러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는 청소년들을 돕고 섬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질적 연구 및 실험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기독 청소년 연구의 대부분이 비경험적 연구 및 양적 연구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독 청소년의 삶과 경험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기독교교육과 상담, 복지 접근이 기독 청소년에게 어떤 변화와 의의를 만들어내는지 등을 심층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질적 연구, 그리고 기독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등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사역과 실천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실험 연구의 의의 또한 크고 중요한 만큼 질적 연구와 실험 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이 활용될 필요가 크다. 그런데 질적 연구 또는 실험 연구는 인터뷰, 참여/비참여 관찰, 프로그램/서비스 실행 등 연구방법의 특성상 연구 참여자 및 실천현장의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질적 연구와 실험 연구를 위하여는 연구자의 관심과 노력 뿐 아니라 연구자와 기독 청소년 사역 및 실천현장의 교류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다음 과제에서 이를 제시하였다.

넷째, 연구자(연구기관)와 사역 및 실천현장 간의 협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기독 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결국 기독 청소년이 활동하는 현장 예를 들어 교회, 기독교 대안학교, 기독교상담기관, 기독교사회복지기관, 기독교청소년단체 등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연구대상의 표집, 실증적 연구방법의 적용, 기독 청소년 당사자와 부모, 교사와 같은 관계자의 문제의식과 요구 파악 및 그를 통한 연구주제의 선정 등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기관과 사역 및 실천현장 간의 소통과 교류, 협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연구자, 교역자, 현장실천가 등의 인식 전환과 열린 마음,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또는 학문과 일반 학문 간의 학제간 연구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연구계와 현장 간 협업이 체계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학, 기독교 기반의 학문공동체(관련 학회, 연구소 등), 교단, 교육

과 상담, 복지 등의 분야별 기독교기관과 협회 등의 공동연구기반이 구축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학제간 연구역량 교육·훈련, 연구비 및 연구기회 제공 등의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먼저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학술논문 중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학위논문 및 등재(후보)지 외의 학술논문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게다가 연구자가 ‘기독교(교) 청소년’, ‘기독교(교) 아동’, ‘기독교(교) 어린이’, ‘기독교(교) 학생’ 및 ‘교회 청소년’, ‘교회 아동’, ‘교회 어린이’ 등의 검색어를 활용하여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논문을 세밀히 조사, 표집하였으나 연구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연구가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연구 동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인해 주제별 연구 동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가족 생활, 학교 생활, 신앙 생활, 또래 관계, 진로 발달, 사회적 관계와 지지 등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주요 주제의 연구 동향과 성과를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최근 연구 동향에서 활용되기 시작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 또는 실증연구 결과를 일정 기준에 따라 수집, 분석하는 메타분석 등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경미 (2010). 청소년 자해행동의 치료 및 예방과 기독교상담학적 방안. **성경과 신학**, 56, 93-123.
- [Kang, K. (2010). Alternative plan in Christian counseling on behalf of therapy & prevention to remove the self-injurious behavior of juveniles. *Bible and Theology*, 56, 93-123.]
- 김난예·이창옥 (2012). 청소년의 교회공동체 적응성 측정도구, **기독교교육논총**, 32, 71-100.
- [Kim, N. Y., & Lee, C. O. (2012). A study on the church community adjustment assesment in youth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2, 71-100.]
- 김미경 (201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적응을 위한 기독교상담 :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17), 74-100.
- [Kim, M. K. (2011). Approach to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through Christian Counseling : Focusing on ego-resiliency.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17), 74-100.]
- 김민선·손병덕 (2020).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과 학교적응의 종단적 관계: 기독교신앙 조건 잠재성장모형 분석. **기독교교육정보**, 64, 101-131.
- [Kim, M., & Sohn, B. (2020).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and school adaptation: An analysis of latent growth model according to religious conditions.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64, 101-131.]
- 김범구 (2012). 청소년 학업중단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19(4), 315-337.
- [Kim B. (2012).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dropout of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4), 315-337.]
- 김수환 (2019). 청소년 대상 교회교육에서 플립러닝의 효과, **신학과 실천**, (64), 203-226.
- [Kim, S. (2019). The effectiveness of flipped learning for teenagers in church education. *Theology and Praxis*, (64), 203-226.]
- 김안식 (2011). 한국기독교 교회의 아동선교복지 사업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27), 397-427.
- [Kim, A. (2011). A Study on the Child Welfare Work mission of Korean, Christian Churches. *Theology and Praxis*, (27), 397-427.]
- 김영숙 (2015).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관련 국내 연구 동향.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16(3), 17-29.
- [Kim, Y. S. (2015). Trends and issues of adolescent's smart phone addiction research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16(3), 17-29.]

김진성 (2020). 기독교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 및 학대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31(3), 99-121.

[Kim, J. S. (2020). The influence of parents' neglect and abuse perceived by Christian adolescents on career identity: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31(3), 99-121.]

김춘이 (2014). 장애 청소년의 자기 효능감 증진을 돕는 기독교 상담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42), 473-497

[Kim, C. (2014). A study on Christian counseling which assists enhancement of self-efficacy in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Theology and Praxis*, (42), 473-497.]

남선우·강인애 (2012). 스마트 러닝으로서 계절 성경캠프 사례연구-청소년 교회교육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32, 267-296.

[Nam, S. W., & Kang, I. A. (2012). A case study of summer youth Bible study camp program as smart learning.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2, 267-296.]

남선우·이은철·이성아 (2018). 교회교육활동 효과성 측정을 위한 청소년 교회교육 프로그램 흥미수준 측정 도구 개발. **기독교교육논총**, 54, 243-275.

[Nam, S. W., Lee, E. C., & Lee, S. A. (2018). Developing a interest level scale of the church education program for measuring the effectiveness of church education activities. *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4, 243-275.]

남현주·윤형식·이태영·신채영·이동훈 (2013). 한부모 가정 청소년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관한 최근 연구 동향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8(1), 129-168.

[Nam, H., Yoon, H., Lee, T., Shin, C., & Lee, D. H. (2013). A Understanding adolescents' development and adaption in single parent famili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8(1), 129-168.]

노은석 (2019). 기독교 청소년의 자존감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종교성향의 조절효과. **기독교교육정보**, 63, 1-25.

[Know, E. (2019). The effects of self-esteem on stress in Christian adolescent: Regulation of religious disposition.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63, 1-25.]

- 박미라 (2009). 기독교교육현장인 청소년 수련회에서 가정사역 프로그램과 예배만족의 효과분석. **기독교교육정보**, 24, 91-119.
- [Park, M. (2009).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ministry programs and the satisfaction of worship service in the Christian education field at youth retreat.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24, 91-119.]
- 박병금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적응 연구 동향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 371-381.
- [Park, B. (2020). Analysis of adaptation research trends of multicultural families adolesc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2), 371-381.]
- 박준하 (2010). 교회학교 청소년 영성회복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검증. **기독교교육정보**, 27, 349-382.
- [Park, J. (2010).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Spiritual Healing Program for the church school adolescent's.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27, 349-382.]
- 배무련·김관희 (2015). 기독교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신앙성숙, 진로소명,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발달 간의 구조적 관계. **기독교교육논총**, 42, 331-358.
- [Bae, M. R., & Kim, P. (2015).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hristian adolescents' social support, spiritual maturity, career calli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2, 331-358.]
- 배은주 (2015). 기독교 청소년의 아버지 의사소통 유형과 영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6(1), 59-81.
- [Bae, E. J. (2015). The mediating effect between the types of father-child communication perceived by adolescents and their spiritual wellness: Verification of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6(1), 59-81.]
- 백은령·손병덕 (2017). 기독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변인 연구: 사회·인구학적 변인, 학교성적,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2(1), 157-176.
- [Paik, E. R., & Sohn, B. (2017). A study on the variables affecting on the life satisfaction among Christian adolescents: Focusing on socio-demographic variables, school attainments, church attendance. *Faith & Scholarship*, 22(1), 157-176.]
- 변영인 (2012). 한국의 다문화 가정에서의 아동 이해와 교회에서의 기독교상담에 관한 고찰. **복음과 상담**, (18), 160-186.

- [Byun, Y. (2012). The Study on the Understanding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y of Korea and Christian Counseling in Church.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18), 160-186.]
- 소태영 (2012). 청소년을 위한 지역교회 교육과정 개발. **기독교교육정보**, 34, 113-143.
- [So, T. Y. (2012). Local church curriculum development for the Korean adolescent.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34, 113-143.]
- 손원영 (2014). 어린이-청소년교회의 형성을 위한 교회론적 의미의 탐구. **종교교육학연구**, 44, 91-112.
- [Sohn, W. (2014). A study on ecclesiological meanings for establishing children-youth church..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44, 91-112.
- 심정연 (2019). 기독교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회복을 위한 기독교 12단계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신앙과 학문**, 24(2), 5-32.
- [Shim, J. Y. (2019).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Christian 12-step program to recover smartphone addiction of Christian adolescents. *Faith & Scholarship*, 24(2), 5-32.]
- 안미옥 (2017). 아동학대에 대한 교회의 인식과 대처 방안에 대한 연구. **개혁논총**, 41, 133-168.
- [Ahn, M. O. (2017). A study of awareness of child abuse and response in Korean church. *Korea Reformed Journal*, 41, 133-168.]
- 오윤선 (2018). 기독교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피해경험이 영적·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자기통제력 매개효과-. **복음과 상담**, 26(2), 155-184.
- [Oh, Y. S. (2018). The effects of cyberbullying victimization on the spiritual well-be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Christian adolescent - Mediating effect of selfcontrol-.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26(2), 155-184.]
- 유명복 (2005). 교육논문 :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용과 기독교교육의 과제. **성경과 신학**, 37, 297-319.
- [Yoo, M. B. (2005). Christian Education : The Adjustment of North Korean Refugee Adolescents in South Korea and the Task of Christian Education. *Bible and Theology*, 37, 297-319.]
- 윤영대 (2011). 청소년 전도를 위한 기독교 문화적 방안 연구. **복음과 실천신학**, 24, 133-161.
- [Yoon, Y. (2011). The study Christian culture aspect for youths evangelism. *Journal of Evangelical Practical Theology*, 24, 133-161.]
- 윤혜경 (2019). 탈북청소년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독교 선교 방안 - 기독교 대안학교 중심으로. **복음과**

- 선교**, 47(3), 121-157.
- [Yoon, H. (2019). Christian mission strategy for the establishment of North Korean refugee youths' identity: with Christian alternative school. *Evangelical Missiology*, 47(3), 121-157.]
- 윤혜순 (2014). 탈북청소년 연구동향과 과제. **청소년학연구**, 21(11), 125-149.
- [Yun, H. (2014). Research trend and priority subject of research on North Korean migrant youth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11), 125-149.]
- 이규민 (2019). 신앙공동체 및 영적 회복을 위한 기독교교육: 청소년 교육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59, 119-136.
- [Lee, K. (2019). Christian education for the restoration of faith community and spirituality: with a focus on youth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ligious Education*, 59, 119-136.]
- 이명훈 (2015). 가출 청소년을 위한 돌봄과 체계론적 기독교상담 연구. **대학과 선교**, 29, 303-331.
- [Lee, M. H. (2015). A study of systems Christian counseling and care for teenage runaways. *University and Christian Mission*, 29, 303-331.]
- 이문영·배용순 (2020). 청소년 자해 관련 국내 연구 동향. **학교사회복지**, 50, 53-78.
- [Yi, M., & Bae, Y. S. (2020). Research trends related to adolescent self-injury in Korea.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50, 53-78.]
- 이성주·강대용 (2018). Comenius의 범교육학에 기반한 기독교청소년 대상 기독교교육 프로그램. **기독교 교육정보**, 58, 51-82.
- [Lee, S., & Kang, D. (2018). Christian education program for Christian adolescents based on the pampaedia of Comenius.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58, 51-82.]
- 이영희·박준하 (2011). 기독교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하나님 이미지의 관계. **한국기독교 상담학회지**, 21, 189-210.
- [Lee, Y. H., & Park, J. H. (20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the image of God which perceived by Christian youth according to the faith-related variations.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21, 189-210.]
- 이은규 (2011). 기독교청소년을 위한 커리큘럼으로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26(2), 247-275.
- [Lee, E. K. (2011). Research on Westminster shorter catechism as curriculum for Christian

youth. *Theology and Praxis*, 26(2), 247-275.]

이은철·남선우·이성아 (2018). 기독교 청소년의 신앙유능감 척도 개발을 위한 구성 요인 탐색. **기독교교육논총**, 56, 347-367.

[Lee, E. C., Nam, S. W., & Lee, S. A. (2018). Exploring factors for developing a faith competence scale for Christian adolescent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6, 347-367.]

이준우 (2004). 기독교교육과 농(農)청소년의 심리사회적 기능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정보**, 9, 77-112.

[Lee, J. W. (200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ristian education and psychosocial functions of Korean deaf adolescents.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9, 77-112.]

이현주 (2016). 청소년의 종교기관 출석빈도, 공동체의식, 사회·정서적 적응과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 기독교와 타종교의 비교. **기독교교육논총**, 48, 79-111.

[Lee, H. (2016).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religious activities, community spirit, social-emotional adaptation and life satisfaction: Comparison of Christianity and other religion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8, 79-111.]

이효경·이순희·손은령 (2018).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진로상담에 관한 연구동향: 국내 주요 상담 학술지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14), 621-641.

[Lee, H., Lee, S., & Sohn, E. Y. (2018). Career development and career counseling research trends of youth: Focusing on the counseling journal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14), 621-641.]

장성화·윤향숙·황인호 (2010). 기독교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9, 283-303.

[Jang, S. H., Yoon, H. S., & Hwang, I. H. (2010). The effect of cellular phone addiction on school adjustment of Christian teenagers. *Korean Journal of Christian Counseling*, 19, 283-303.]

장화선 (2015). 우리나라 교회교육의 회복을 위한 방안: 어린이 및 청소년 교회학교를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75, 259-283.

[Chang, H. S. (2015). Strategies of restoring church education in Korea focused on children and youth education. *Bible and Theology*, 75, 259-283.]

- 전명순 (2017). 청소년활동의 국내 연구동향 분석을 통한 향후 과제 제시. **한국청소년활동연구**, 3(2), 17-40.
- [Jeon, M. (2017). Representing tasks by analyzing trend on domestic studies of youth activities. *The Journal of Youth Activity*, 3(2), 17-40.]
- 전요섭·배은주 (2005). 청소년의 부모인식과 하나님 이미지와의 관계 - 기독교청소년을 중심으로 - **복음과 상담**, (5), 321-346.
- [Jeon, J., & Bae, E. J. (2005).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ce's parents attitude and God image - in focus of the Christian adolescence -.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5), 321-346.]
- 정경미·김미경 (2015). 청소년 신앙형성을 위한 잠재적본격적 사역의 실행과정 탐색. **기독교교육정보**, 45, 257-288.
- [Jung, K., & Kim, M. (2015). Youth ministry for faith formation action process research about ministry for youth.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45, 257-288.]
- 조용훈 (2014). 청소년 학교폭력과 기독교의 과제. **기독교사회윤리**, 30, 195-224.
- [Jo, Y. H. (2014). A study on the youth school violence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ethics. *The Korean Journal of Chiristian Social Ethics*, 30, 195-224.]
- 조은하 (2013). 기독교 청소년 교육에 대한 창조적 성찰. **기독교교육논총**, 34, 147-168.
- [Cho, E. (2013). A Critical and Creative Study on Christian Youth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34, 147-168.]
- 조혜영 (201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주요 이슈 고찰: 연구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0(2), 485-498.
- [Jo, H. (2019). A study of major issues on supporting youths out of school: Focusing on analysis of related research trend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0(2), 485-498.]
- 조혜정 (2015). 청소년의 자율성 관련 부모 갈등과 신앙성숙과의 관계. **기독교교육정보**, 47, 27-53.
- [Cho, H. J. (2015).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children conflicts on autonomy and faith maturity.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47, 27-53.]
- 주정관 (2014). 청소년 문화, 부적응, 자살에 대한기독교 교육적 대안. **개혁논총**, 31, 289-320.

- [Joo, C. (2014). Christian education for the youth culture, maladaptation and suicide. *Korea Reformed Journal*, 31, 289-320.]
- 최수영·김준 (2014). 기독교 청소년의 영성, 종교성, 정신건강의 연관성과 기독교 상담에의 함축성. **복음과 상담**, 22(2), 371-409.
- [Choi, S. Y., & Kim, J. (2014). Research on spirituality, religiosity and mental health of Christian adolescent and implications for Christia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22(2), 371-409.]
- 황옥경 (2010). 다문화 상황과 선교 ; 아동에 대한 교회 지원의 선교적 함의. **복음과 선교**, 13, 105-128.
- [Hwang, O. K. (2010). A missiological significance of church's support to the children. *Evangelical Missiology*, 13, 105-128.]
- Bradley, D. E. (1995). Religious involvement and social resources: evidence from the data set "Americans' changing live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4, 259-267.
- Francis, L. J., & Kaldor, P.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Christian faith and practice in an Australian population sample.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1(1), 179-184.
- Lam, P. (2002). As the flocks gather: How religion affects voluntary association participatio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1(3), 405-422.
- Loveland, M., Sikkink, D., Myers, D., & Radcliff, B. (2005). Private prayer and civic involvement.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4(1), 1-14.
- McIntosh, D. N., Silver, R. C., & Wortman, C. B. (1993). Religion's role in adjustment to a negative life event: coping with the loss of a chil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812-821.
- Nooney, J., & Woodrum, E. (2002). Religious coping and church-based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mental health outcomes: testing a conceptual model.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41(2), 359-368.
- Regnerus, M., Smith, C., & Fritsch, M. (2003). *Religion in the Lives of American Adolescents: A Review of the Literature (A Research Report of the National Study of Youth and Religion)*. Chapel Hill, NC: National Study of Youth and Religion.
- Salas-Wright, C. P., Vaughn, M. G., & Maynard, B. R. (2014). Buffering effects of religiosity

on crime: Testing the invariance hypothesis across gender and developmental period.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41(6), 673-691.

Schnitker, S. A., Medenwaldt, J. M., & Williams, E. G. (2020). Religiosity in adolescence. *Current Opinion in Psychology*, 40, 155-159.

Stone, H. W., Cross, D. R., Purvis, K. B., & Young, M. J. (2003). A study of the benefit of social and religious support on church members during times of crisis. *Pastoral Psychology*, 51(4), 327-340.

한국의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연구 동향: 2001년부터 2020년 발표논문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Christian Adolescents in Korea – Focusing on Articles from 2001 to 2020

오혜정 (총신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 청소년을 연구한 선행논문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기독교 청소년 관련 연구과제를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으로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논문 총 138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논문의 연도별 출현빈도는 2001년 2편에서 2020년 7편으로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독교 청소년 관련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는 총 22종이었는데 주로 기독교신학과 기독교교육, 기독교상담 분야에 집중되었다. 셋째, 연구자 동향을 살펴본 결과 1인 단독연구가 상당수였고, 연구자 대부분은 교수, 강사, 대학원생 등 대학에 소속되어 있었다. 2인 이상의 연구 중 대학 소속 연구자와 그 외 소속 연구자 간의 협업 논문은 6편에 불과하였다. 넷째, 연구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비경험적 연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험적 연구 중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실험 연구의 순이었고 다섯째, 경험적 연구 61편을 중심으로 연구대상을 분석한 결과 중·고등학생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등학생, 중학생 등의 순이었다. 여섯째, 연구주제에 있어서는 정서·행동 차원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영적 차원, 사회적 차원, 취약 청소년 지원, 문화적 차원, 역량 차원의 순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독교 청소년에 관한 향후 연구과제로 연구의 양적 확대 및 연구주제 다각화, 취약 청소년을 위한 사역과 실천에 대한 연구관심 제고, 질적 연구 및 실험 연구의 활성화, 연구자(연구기관)와 사역 및 실천현장 간의 협업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기독교 청소년, 연구 동향, 기독교, 청소년